

고대 장의미술의 장식과 건축의 관계 The Interplay of Decorative Scheme and Architecture in Ancient Funerary Space

박아림 Ah-Rim Park

(숙명여자대학교 Soomyung Women's University)

I. 머리말

중국의 고분미술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고분에 그려진 회화는 일반 회화가 아니라, 상장의례의 한 부분을 이루는 요소로서 고분미술과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분의 회화, 조각, 공예품을 고분 자체의 맥락(context) 안에서 종합하여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고분미술은 건축과 회화, 조각, 공예미술 등 미술형식이 집합된 종합 예술체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큰 명제의 철학적인 사유가 구체화되고 조형화되어 시각적인 언어로 ‘사후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시각에 기반한다. 고분미술이 미술사의 ‘독자적인 하위학문(sub-discipline)’으로 발전하려면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이다.¹

기원후 3-7 세기 동아시아 고분미술의 중요한 유산인 고구려 벽화고분 역시 평면적인 회화에 대한 주제별 또는 단순한 비교사적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그 연구 지평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주로 2 차원적 평면에 회화로 표현된 고구려의 벽화의 배치와 구성을 3 차원적인 건축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해석한다면 종합적인 상장 미술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은 중국의 벽화고분과 달리 대부분 일찍 도굴되어 출토된 조각, 공예품의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중국 벽화고분에 적용되는 연구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중국의 장의미술의 묘내 시설물(단, 제대, 기둥), 병풍, 도용 등 부장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장의건축과 장식의 구성을 이해하면 2 차원적 평면 형식으로 표현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葬儀 공간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발견된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벽화고분이 좋은 사례가 된다.² 옥도리 벽화고분은 전실과 후실로 구성된 二室墳으로 발굴 내용이 도록을 통하여 상세하게 공개가 되었다. 후실의 묘주부부도의 ‘大’字와 ‘王’字 流雲文 장식문양과 함께 집안의 무용총, 장천 1 호분과 유사한 가무도와 수렵도가 발견되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과 지역간 교류, ‘大’字와 ‘王’字의 상징적 의미 등 고구려 벽화 연구의 신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 관련 연구를 진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고분의 건축구조적 특징인 前室의 龕과 壇의 설치이며 벽화 내용면으로는 후실 북벽 묘주도의 ‘大’字와 ‘王’字 流雲文 장식문양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달에서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은 5 세기 집안지역에서 출현하는 독특한 형식이다. 순수장식문양만으로 구성된 고분벽화는 동시기 중국의 벽화고분과는 차별되는 특징이며 이러한 고구려적 독자적 발전과정은 후기의 사신도로만 구성된 벽화로 이어진다. 장식문양도는 집안지역 후기 벽화고분에서 사신도의 배경으로 존속한다.

¹ 鄭岩, 「중국 미술사의 고분미술 연구사」, 『美術史論壇』 第 30 號 2010. 6, 167-190.

² 옥도리벽화고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1. 고희의,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1 집, 2011, pp.141-158. 李成制, 「龍岡黃龍山城과 黃海~大同江沿岸路」, 『高句麗渤海研究』 41, 2011, pp.159-183.

필자는 옥도리 벽화고분의 특징을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과 비교하는 가운데 고구려 중기의 순수 장식문양 고분의 출현이 고분의 구조적 특징과 장식문의 의미의 확대에 수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이나 사신도 고분의 출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고구려 내에서의 불교나 도교적인 사상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도리 벽화고분에 나타난 ‘王’字 流雲文과 감과 단을 사례연구로 하여 장의 미술 공간에서 벽화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연계되어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옥도리 벽화고분을 포함한 남포지역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감 또는 제대, 기둥을 가진 벽화고분을 살펴본다.³ 다음으로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에 사용된 ‘王’字 流雲文 병풍 또는 휘장 장식 문양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들을 정리하여 장식문양의 활용과 기능을 알아본다. 또한 순수 장식문양 고분을 포함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유장(휘장) 걸이 흔적에 대하여 실제 고분 내 유장과 같은 구조물 설치의 가능성을 고찰해본다.

이를 통하여 장식문양 고분의 출현 배경, 고분에서의 장식문양의 의미와 실제 고분 안에서 장식문양이 그려진 휘장 설치의 가능성, 벽에 그려진 벽화와 벽에 설치된 그림과의 관계와 상징성, 고분 안에서의 장식과 건축의 관계를 고찰한다.

고구려 초기와 중기 벽화고분에서 발견되는 (제)단, 휘장(과 못걸이), 관대, 감실의 설치 등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은 고분이라는 장의건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험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건축적 요소들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체적 장식 계획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의 공간에서 장식문양의 기능과 역할을 묘주도에 보이는 상징적, 건축적 요소들과 함께 고찰하고 고분의 장식문양과 건축 구조를 통하여 재현된 영좌의 표현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고구려 벽화고분의 龕과 壇의 사례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벽화고분은 墓道, 前室, 전실에 달린 두 개의 龕, 甬道, 그리고 後室로 구성된 二室墳이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편년에 대하여 북한의 발굴보고서에서는 유사한 구조의 감신총과 비교하여 4 세기 말~5 세기 초로 보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옥도리 벽화고분이 평양계와 집안계 복식이 혼합되어 있어 5 세기 전반의 감신총보다는 늦고 5 세기 후반의 안악 2 호분 보다는 빠른 시기, 즉 5 세기 중반으로 편년하기도 한다.⁴ 감신총과 건축구조적인 면이나 벽화의 배치면에서 유사하며 고구려 초기 벽화고분의 특수한 묘내 시설인 감, 단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면 5 세기 전반으로 보이지만, 사신도가 출현하고 무용도와 수렵도에 보이는 평양지역과 집안지역과의 교류를 고려하면 5 세기 중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⁵

옥도리 벽화고분의 前室은 길이 258cm, 너비 185cm, 현존 높이 106cm 이며, 東龕은 길이 72cm, 너비 30cm, 현존 높이 30cm, 西龕은 길이 65cm, 너비 52cm, 현존 높이 54cm 이다. 後室의 치수는 길이 285 cm, 너비 283cm, 현존 높이 228cm 이다. 전실의 동감과 서감 앞에는 길이 185cm, 너비 20-25cm, 높이 18cm 의 단이 설치되었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전실의 천장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감 안에 그려진 벽화도 기둥의 흔적 외에는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옥도리 벽화고분의 감 안에 그려졌을 벽화의 내용이나 감과 단의 기능에

³ 고구려 벽화고분의 내·외부 구조(감실 혹은 측실, 석주, 석상, 관대, 휘장, 유장걸이)에 대해서는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pp.243-324.

⁴ 동북아역사재단 편,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2011. 곽광의,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1 집, 2011, pp.141-158.

⁵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대해서는 유사한 구조의 고구려 벽화고분들과 비교를 통하여 유추할 수 밖에 없다.

고분의 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 크기와 위치, 감 안에 묻힌 부장품의 성격과 기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 고분의 감은 대개 묘주초상이나 제대를 설치한 묘주의 혼전을 상징하는 공간이거나 또는 부장품을 안치하는 공간이다. 고구려 고분은 대부분 이미 도굴이 된 상태여서 감과 부장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구조적 특징인 龕과 壇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포지역과 인근 평양, 안악지역의 초기, 중기 벽화고분에 나타난 유사 건축구조의 사례를 살펴본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감은 二室墳의 前室(감신총, 옥도리 벽화고분, 약수리 벽화고분), 單室墳의 墓道(동명왕릉)나 主室(태성리 2 호분, 안악 2 호분)에 달려있다. 남포지역에서 감이 있는 고분들은 감신총, 옥도리 벽화고분, 용강대묘, (간성리) 연화총, 약수리 벽화고분 등이다. 감신총(5 세기 전반)은 옥도리 벽화고분과 구조가 거의 같은 고분이다. 두 고분의 감의 크기도 비슷하다.⁶ 감신총의 동감과 서감에는 묘주초상과 神像형 인물상이 각각 담겨있다. 또한 후실 북벽에 옥도리 벽화고분과 유사한 ‘왕’자 유운문이 장식된 묘주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연화총(5 세기 중)은 장방형 전실과 정방형 후실로 구성된 이실분으로 독특하게 전실에 네 개의 감이 있다. 연화총의 서감에는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의 휘장 상부 장식과 유사한 장식문양과 시종의 그림이 남아 있어 역시 유사한 묘주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신총과 연화총은 옥도리 벽화고분과 지역적으로 가깝고 감의 크기도 유사하기 때문에 옥도리 벽화고분의 두 감도 묘주도 도상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 감의 앞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감신총의 서감과 같은 묘주의 숭배대상이 되는 神像형 인물상이 한쪽 감에 그려졌을 수도 있다.

1910 년대에 세키노에 의해 용강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구조상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고분으로는 용강대묘(5 세기 전반)와 쌍영총(5 세기 후반)이 있다. 이 두 고분은 연화총과 옥도리 벽화고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특수형 구조 고분의 전파와 발달에 참고가 된다. 용강대묘는 장방형 전실과 방형 후실로 구성된다. 중앙에 통로가 있고 통로 좌우에 감 형식의 공간을 만들고 좌우에 후실로 통하는 네모진 창구멍을 뚫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이를 ‘기이한 벽감’으로 서술하였다. 장방형 전실은 연화총, 가장리 벽화고분, 천왕지신총, 대안리 1 호분과 유사하다. 안악 3 호분의 전실에 딸린 측실이 간략화된 형식으로 다실분이 이실분으로 변화하는 5 세기 벽화고분에 나타난 묘실구조의 한 유형으로 본다. 천왕지신총과 대안리 1 호분은 묘실 안에 ‘人’자형 두공을 부조로 표현하여 고분 공간을 목조 건축의 재현으로 충실히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용강대묘의 전실과 후실 사이의 독특한 공간은 벽감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쌍영총의 팔각형 기둥과 같이 전실과 후실을 나누는 경계로서 기둥과 두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용강대묘와 쌍영총의 고분 내의 특수한 건축구조는 고구려 벽화고분이나 중국 한대 사당과 같은 장의 건축에 보이는 감과 기둥의 역할과 연계되어있다.

약수리 고분(5 세기 초)은 전실의 동서 벽에 감이 있다. 동감은 높이 80cm, 너비 76cm, 깊이 42cm, 서감은 높이 80cm, 너비 75cm, 깊이 48cm 이다. 감 안의 벽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감의 크기가 옥도리 벽화고분보다 크다. 전실과 후실의 북벽에 묘주도가 그려져 있는데 전실의 묘주도는 덕흥리 벽화고분의 것과

⁶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은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p.417-419 를 따랐다.

유사하다.

안악지역의 안악 2 호분(5 세기 후반)은 단실묘로 오직 하나의 작은 감이 동벽에 붙어 있으며 감 안의 벽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이 있는 동벽에 연화를 손에 든 세 명의 공양인과 두 명의 비천상으로 구성된 행렬이 나타난다.

평양지역에서 감이 있는 고분으로는 평양역전벽화분(4 세기말)과 전동명왕릉(5 세기중)이 있다. 평양역전 벽화고분은 전실에 감실이 서로 빗대어 위치한다. 서벽 감실 좌우에는 사각 기둥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안악 3 호무덤의 결간과 입구의 기둥을 연상시켜 서벽 감실은 결간의 구조가 간략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진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두 번째 건축적 특징은 전실의 동, 서벽의 감 앞에 놓인 단이다. 단의 치수는 길이 185cm, 너비 20-25cm, 높이 18cm 이다.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도 크기가 다양한 단이 발견된다. 그러나 옥도리 벽화고분과 같이 전실의 너비만큼 긴 단이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이 설치된 고구려 벽화고분으로는 옥도리 벽화고분, 팔청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 약수리 벽화고분(남포), 장산동 1, 2 호분(평양), 복사리 벽화고분(안악지역), 동암리 벽화고분(순천), 모두루총, 통구사신총, 오회분 4 호묘(집안)이 있다.

남포 북쪽의 대동에 위치한 팔청리 벽화고분에 대한 보고서 가운데 전실의 사면 벽에 단이 설치되었다는 언급이 있으나 팔청리 벽화고분의 평면도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길이 50cm, 너비 50cm, 높이 24cm 의 단이 전실 서벽에 하나 놓여있으며 단 앞에는 묘주도가 그려져 있다.

덕흥리 벽화고분과 약수리 벽화고분은 후실 서벽과 북벽에 붙여서 관대가 설치되었으며, 전실 서쪽으로 북벽에 붙여서 장방형의 대가 설치되었다.

장산동 1 호분은 인물풍속 및 사신도 주제의 단실묘로 관대 앞에 石柱 한 쌍과 石桌 한 쌍이 있다. 높이 40cm 의 석주는 묘실 중심에 서서 묘실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북벽에 묘주부부 장방생활도와 현무도가 있다. 기둥과 단, 관대의 결합은 북조 고분의 석상의 설치와 유사하다. 장산동 1 호분에서 서쪽의 돌상은 관대의 높이와 같고 동쪽의 것은 그보다 낮다.

안악 지역의 복사리 벽화고분은 묘실 서남 모서리에 장방형의 작은 제대가 마련되어있다. 고구려 벽화는 대개 수평으로 벽면을 나눠 장면을 구획한다. 복사리 벽화고분은 드물게 서벽 중앙에 기둥을 그려 화면을 분할하였다. 행렬하고 있는 묘주도의 앞에 단이 놓여져 있다.

오회분 4 호묘는 묘실 안에 3 개의 관대가 동서로 나란히 놓였다. 서벽에 치우친 남벽에 제대가 놓였다. 길이 1.78m 너비 0.87m 높이 0.2m 이다. 통구 사신총은 두 개의 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놓여 있다. 또한 두 개의 제대가 북벽에 맞닿아서 놓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안에서 단의 위치는 각 고분마다 다르다. 팔청리고분(전실 서벽), 덕흥리 벽화고분(전실 북벽), 복사리 벽화고분(주실 남서벽)의 단은 묘주도의 위치와 연계되어있다. 묘주도가 없는 후기 벽화고분은 이러한 방향성과 관련이 없으며 단의 수도 다양하다. 통구 사신총은 북쪽에 두 개, 서쪽에 한 개로 모두 세 개의 단이, 오회분 4 호묘는 남서쪽에 하나의 단이 있다.

별도로 단이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전실 또는 耳室이 묘실 바닥보다 한 단 높게 만들어진 사례는 장천 2 호분의 이실과 천왕지신총의 서측실이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달에서 묘주도의 위치는 전실의 서측실에서 후실 북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악 3 호분과 평양역전벽화고분의 서측실 앞에 세워진 기둥은 고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강조한다.

천왕지신총은 묘주도가 후실 북벽에 있는데, 측실 입구에 문양을 그린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한 단 높여 전실의 서측실이 가진 魂殿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표현되어 있다. 순천의 요동성총도 서쪽 측실 밑바닥을 32cm 높게 하고 천장도 따로 형성하였다. 동쪽 측실 역시 천장을 따로 만들고 입구의 중심에 8 각 형태의 기둥을 세워 도리가 부러진 곳을 받치고 있다. 기둥과 단을 세우고 천장을 별도로 형성한 것은 해당 공간이 고분 내의 다른 공간과는 구별되는 구조물로서 상징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중국 한위진남북조 고분에서 제대와 帷帳의 설치가 묘주의 관이 있는 곳이 아닌 前室이나 中室의 한 부분에 세워지는 것과 비교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구려 벽화에서 감은 종종 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도상인 묘주도를 담고 있으며, 단은 대개 묘주도 앞에 놓여져 祭臺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묘주도 앞에 세워진 기둥은 묘주도상의 제의적 상징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장의미술에서 감, 단, 기둥이라는 구조물은 한나라의 사당 건축 또는 불교석굴의 불감에 연원을 찾는다. 먼저 이들 구조물은 한대 이래의 사당과 고분 안의 제사공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⁷ 동한에 이르러 종묘제사의 형식을 이어받아 묘지 앞 사당의 축조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석사당은 산동성 서남부, 강소성 북부 서주지구, 안휘성 북부지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산동성 장청현 효당산, 가상현 송산, 안휘성 숙현 저람, 강소성 서주시 홍루, 청산천 백집의 소사당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대 석사당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제 3 종인 산동성 장청현 효당산 사당의 후벽에 접해 하나의 길고 넓은 장방형 제대석을 좌우벽에 붙여 옆으로 놓은 사례가 있다. 제 4 종의 한대 석사당의 형식은 龕室이 있는 두칸맞배지붕식 건축이다. 형태와 크기가 제 3 종 사당과 같으나 후벽 하부의 중앙에 밖으로 튀어나온 하나의 감실을 설치한 것이 차이점이다. 후벽에 감실을 축조하는 방법은 중국 고대 종묘의 독특한 건축 특징이다. 서한 종묘와 능묘의 후벽에는 모두 황제의 신주를 모신 감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국 한대 사당에서 서감은 神主가 모셔지던 위치로 그 상징성이 감이 달린 고분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한위진대 고분에서 고분 전실의 서측실은 魂殿으로 여겨져 묘주초상이 그려졌다. 북조 고분에서는 사당의 형식을 본뜬 가옥형 석곽(또는 목곽)이 안치되고 그 석곽 안에 石床이 안치된 사례가 있다. 또는 圍屏石塼의 형식으로 묘실 한 가운데에 병풍을 두른 석탑을 배치하여 葬具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III. 고구려 벽화 장식문양의 출현과 확대

다음으로 옥도리 벽화고분 묘주도에 사용된 ‘王’字 流雲文의 병풍 또는 휘장 장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필자는 최근 줄고에서 이러한 장식문양이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출현,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다.⁸ 옥도리 벽화고분의 묘주도의 배경에 보이는 유운문과 ‘대’자와 ‘왕’자 장식은 다른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도 관찰된다. 왕자 유운문 장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왕자 유운문이 묘주도의 병풍과 휘장, 주실 벽과 전실 벽의 장식문양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관

⁷ 중국 동한시대에는 조상에 대한 제의가 고분에서 이루어지고 크기가 커진 고분 묘실에서 사자를 환송하는 제의가 가능하게 된다. 고분 안의 영좌의 설치를 통하여 묘주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다. 또한 사후 영혼의 관념이 이 시기에 변화하여 혼백 관념이 종묘와 고분의 이중성과 연계하여 발달한다. 전통적인 종묘와 현실의 가옥이 모두 고분 안에 포함된다. 지하고분을 가옥 구조와 같이 입체적 공간으로 건축하게 된다. 상주시대 종묘가 반복되는 각종 의례 행사가 거행되는 곳이었다. 반면, 고분은 일회성의 상장의례가 행해진 곳이었다. 그러나 한대부터 나타나는 묘상건축과 복합형 능묘건축의 출현은 고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성립과 확산을 보여준다. 黃曉芬 저, 김용성 역,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2006.

⁸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뒤의 벽면과 관대 자체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王’字 流雲文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

벽화고분	편년	위치	
덕흥리벽화분	408년	남자묘주 전실 병풍	유운문
감신총	5세기 전반	전실 서감 인물상 휘장 후실 북벽 묘주도 휘장	‘王’자 유운문
옥도리벽화고분	5세기 전반	후실 북벽 묘주부부도 휘장	‘大’자 ‘王’자 유운문
쌍영총	5세기 후반	후실 서벽 장방도	‘土’자 유운문
안악2호분	5세기 후반	묘실 북벽 묘주부부도 휘장 묘실 서벽 행렬도 하단	유운문 유운문
장천1호분	5세기 중	전실 남벽 묘주부부도 병풍	‘工’자 연속도안
장천2호분	5세기 중	전실 벽면	‘王’자 유운문
산성하332호묘	5세기 중	후실 벽면	‘王’자 유운문
미창구장군묘	5세기 중	전실 벽면	‘王’자 유운문
오회분 5호묘	6세기 후	묘실 관대	(‘王’자) 유운문

왕자 유운문 장식은 묘주의 실제 초상이 없는 고분에서 묘실의 유일한 장식체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식 체제는 보이지 않는 또는 묘사되지 않은 묘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병풍의 장식으로 사용되든 고분의 전실 또는 후실의 전체 벽면을 덮는 장식으로 사용되든, 또는 관대의 장식으로 사용되든 모두 묘주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⁹

이러한 ‘왕’자 유운문의 활용 사례는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벽화장식과 건축이 어떻게 결합, 구성, 배치되는가를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묘실 전면을 장식한 왕자 유운문은 처음에는 병풍 또는 휘장과 같이 기물 표면에 시문되었던 장식문양이었다가 병풍과 휘장의 틀을 벗어나서 장식공간이 확장되면서 묘실 전체 공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벽에 거는 무늬가 있는 비단 휘장(유장)이 그림의 형태로 벽면에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⁰

[표 2] 연화문이 묘주도의 병풍(휘장)과 묘실 벽을 장식하는 고구려 벽화고분

벽화고분	편년	위치
천왕지신총	5세기 중	후실 북벽 묘주도(연봉오리) 후실 네 벽(연화 귀갑문)
수산리 벽화분	5세기 후반	묘실 북벽 묘주도(연봉오리)
장천1호분	5세기 중	전실 북벽 백희도(연봉오리) 후실 네 벽(정면 연화문)
산성하983호묘	5세기 중	묘실 벽 천정
산연화총	5세기 중	묘실 벽
미창구장군묘	5세기 중	묘실 벽
전동명왕릉	5세기 중	묘실 벽

고구려 벽화 주제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왕자 유운문의 표현양상은 생활풍속도 주제의 벽화고분에서 묘주도의 병풍이나 휘장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장식문양도 주제 고분에서 묘주도의 직접적 표현 없이 묘실 공간을 꾸미는 상징적 장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묘주

⁹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¹⁰ 줄고, 「고구려 벽화의 장식 문양과 錦帳의 표현」,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또는 묘주가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식문양은 왕자 유운문 외에도 연화문이 있다[표 2].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묘주가 앉은 전각과 같은 공간을 덮고 있는 휘장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쌍영총의 묘주도는 이중의 구조물 안에 들어있는데 휘장이 집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있다. 왕자문 도안이 병풍 또한 휘장 장식에서 묘실 벽면으로 확대된 것은 기물의 장식이 벽화로 표현되어 묘실 벽면을 덮은 것인데, 몇몇 장식문양 고분을 포함 고구려의 일부 벽화고분에서 휘장 걸이 용 못과 못 자국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 수놓은 견직물이 고분 내부의 공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표 3].¹¹

고구려 고분의 장구와 관련된 유물로는 꺾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 등이 있다. 꺾쇠는 목곽에, 걸고리 못은 꺾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벽화고분이 아닌 적석총 중에서 장구(목곽, 목관, 꺾쇠, 걸고리, 관정, 관고리)가 출토된 사례는 우산하 2112 호묘, 장군총, 천추총, 태왕릉 등이 있다.

휘장 걸이용 못과 못 자국이 발견되는 벽화고분은 집안지역 초기 벽화고분이면서 인물화나 장식문양도가 발견되지 않는 고분(만보정 1368 호분과 모두루총),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이면서 묘실 벽면 상단의 연화문 중심에 못과 못자국이 발견되는 고분(우산하 1041 호묘, 통구 12 호분, 마선구 1 호묘), 순수 장식문양도 고분이면서 휘장 걸이 용 못자국이 발견되는 고분(산성하 983 호묘, 미창구 장군묘, 장천 2 호분), 사신도 고분으로 못자국이 있는 고분(통구 사신총, 오희분 4, 5 호묘, 강서대묘와 중묘)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첫 번째 경우는 인물생활풍속도나 장식문양도가 발견되지 않아, 만약 휘장이 걸렸다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목곽묘나 목실묘에서 출토되는 걸고리로 볼 때 목재로 이뤄진 꺾이나 실의 벽에 휘장을 거는 용도라면 그 휘장에는 중국 한대를 중심으로 한 목곽들의 벽에 거는 帟畫와 같이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며, 고구려 고분벽화가 이 목곽과 목실묘의 백화에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¹³

모두루총은 전실 남벽 상단에 긴 槽(길이 약 180cm, 너비 6cm, 깊이 2cm)와 못구멍이 있어 한쪽 벽면에 휘장을 거는 형식인데, 태왕릉에서 출토된 금동 幔架와 같은 것이 걸린 자리가 아닌지 생각된다.

인물생활풍속도고분인 우산하 1041 호묘, 통구 12 호분, 마선구 1 호묘는 벽면 상단에 횡렬로 배열된 연화문에 못 자국이 출현한다. 우산하 1041 호묘와 마선구 1 호묘는 천정에도 걸고리를 설치한 구멍이 있어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 형태의 유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천 1 호분은 연화문만으로 장식된 후실의 동, 남 북 벽면에 못 자국이 발견된다. 인물생활풍속도 고분의 못자국과 유장 설치가 연화문 문양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은 다음에 살펴볼

¹¹ 줄고, 「5-6 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 18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¹² 줄고, 「5-6 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 18 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¹³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호, pp.115-154.

4-5 세기 고분인 만보정 1368 호분이나 모두루총에서 인물생활풍속도가 발견되지 않지만 벽에 거는 백화의 형태로 인물도가 걸려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구려 중기의 장식문양도에서 묘주와 묘주의 배경인 장식문양도의 조합에서 묘주의 초상은 백화로 그려져 장식문양도 앞에 걸려있었을 가능성을 없을지, 후기의 사신도 고분에서 인물생활풍속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백화의 형태로 고분 안에 존속되었을 가능성은 없을지 백화와 벽화의 발전관계에 대하여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순수장식문양도 고분에도 보이는 특징이다.

다음으로 순수장식문양고분인 산성하 332 호분, 장천 2 호분, 미창구 장군묘는 모두 후실 벽 상단에 일정 간격으로 못 자국이 남아있다. 집안지역 후기벽화고분의 (휘장걸이용) 못 구멍은 중기의 벽화고분과 차이가 난다. 통구 사신총은 네 벽의 중간지점이자 벽과 천정의 경계선을 이루는 곳에 나왔다. 강서중묘는 네 벽의 상단과 천장 한 가운데에 방형 구멍이 나있어 마선구 1 호묘와 같은 천장과 벽면을 덮는 휘장이 설치되었을 수도 있다.

[표 3] 휘장걸이용 小孔과 걸고리못이 출토되는 고구려 벽화고분

벽화고분	연년	위치	소공의 개수와 치수	출토유물
만보정1368호분	4세기 중	묘실 네 벽 상부	북:9개, 서:6개(32-62cm), 동:2개, 남:4개(49-69cm)	
모두루총	5세기 초	전실 남북 상부	6개	길이 약 180cm, 너비 6cm, 깊이 2cm의 槽 안에 3개, 梁枋 위 3개
우산하1041호분	5세기 중	묘실 남, 북 벽 (좌우벽) 상부	북:6개, 남:6개 (35cm) 정면연화문 중심	麻布 잔편, 견직물 잔편, 관곽 漆皮 잔편, 철제벽걸이 2점
		묘실 천정	개정석 중앙 좌우에 각각 1개	
통구 12호분	5세기 중	묘실 네 벽 상부	쇠녹 흔적 정면연화문 중심	
마선구1호분	5세기 중	묘실 천정	네 면 정 중앙 각 1개 목질부속품 흔적	철제 걸고리 1점
		묘실 네 벽 상부	연화문 중심 쇠녹 흔적	
장천1호분	5세기 중	후실 네 벽 상부	동:8개, 남과 북: 각 7개	紅松의 관목 잔편(삼베로 둘러싸여 黑漆이 된 것) 관대에 緇縹衣와 유사한 緇縹 도안
장천2호분	5세기 중	주실 네 벽 상부	동: 8개(0.36cm), 남, 북: 각 5개(0.58cm), 서: 4개 동벽 남단과 서벽 북단: 도금된 쇠고리가 남아있음	목관 칠기 잔편, 銅質의 도금된 매화꽃장식, 도금 벽고리 2점, 繩飾 (23cm)
산성하332호분	5세기 중	주실 네 벽 상부	북, 동, 서벽: 각 6개(40-50cm)	철제 벽고리 4점(전체 길이 21cm)
미창구 장군묘	5세기 중	후실 네 벽 상부	남, 북, 동: 각 6개, 서: 2개, 문의 좌우: 2개 동벽 2개의 구멍에 銅釘	
통구사신총	6세기 전	묘실 벽과 천장 경계선	네 벽의 중간지점	黑漆 목관 잔편 4점
오회분4호묘	6세기 전	천정	4개(직경 4-6cm, 깊이 12cm) (남벽 3개?)	주: 홍색 漆片형태 棺木잔편 남벽: 石祭臺(길이 1.78m, 너비 0.87m, 높이 0.2m)
오회분5호묘	6세기후	천정	1단(직경 5cm, 길이 1.5~2cm):용의 입부분	관대:(양자)유운문
		남벽 梁枋아래 / 연도 동서 양벽	3개(직경 5cm, 길이7cm)	
		네 벽 망상문과 양방과 천정	원형의 흑색 점착 안료와 금동의 얇은 편 양방의 각 면: 약 5-6개, 제1과임들 아래 가장자리: 각각 2개, 제2 과임들의 아래 면: 각 3-4개, 천정 아랫면과 제2과임들 하부: 1-2 개	

오회분 5 호묘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벽면의 연화문 및 천장과 양방의 여러 군데에서 원형의 흑색 안료가 접착되어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금동의 얇은 편이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서에서는 도금의 꽃장식이 붙어있던 흔적, 또는 벽면에 금동장식이 뿔혀진 흔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혹시 태왕릉 출토 금동만가와 같은 것이 부착되었던 흔적은 아닌가 생각된다. 태왕릉에서는 청동방울, 청동案足과 함께 금동 幔架(길이 2.68m)가 나와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못 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중국 벽화 고분의 예는 하남 영성 시원묘(기원전 136-118 년)이다. 벽화가 그려진 주실의 네 벽면을 따라 방형 구멍이 56 개가 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槽 안에는 회색 재(썩은 나무)가 남아있다. 주실 네 벽 상단에 있는 구멍과 그 안의 목재 흔적으로 미루어 원래 천막, 간이건물 등을 치는 목조구조의 장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고분에서 유장의 설치에 대한 실물자료가 나온 사례로는 산서 대동 南郊區 田村 北魏墓가 있다.¹⁴ 묘실 북벽의 鐵環이 달린 石棺床(길이 2.28m, 너비 1.26m, 높이 0.25m) 위에서 인동문이 그려진 彩繪木杆 (직경 4cm, 남은 길이 22, 25, 64cm)이 발견되었는데, 관상 위에 幔帳을 설치할 때에 관상의 입면의 철환에

¹⁴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南郊區田村北魏墓發掘簡報』, 『文物』, 2010年 5期.

끼워 넣어 만장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촌 북위묘에서 출토된 실물 자료는 북위시대의 고분 회화에 보이는 帷幔과 帳架의 구조와 축조방법에 대해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魏書』에 의하면 북위 문명태후의 사후 ‘棺槨質約, 不設明器, 至於素帳, 縵茵, 瓷瓦之物, 亦皆不置’라 하여 관곽을 검소하게 하고 명기, 素帳, 縵茵, 瓷瓦를 설치하지 말라고 한 기록이 있다.¹⁵ 당시 고분에서의 素帳과 縵茵 설치가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 못 자국의 형태상 묘실 전체를 덮는 천막과 같은 형태로 유장이 설치되었다면 그 형태는 내부의 목관, 목곽을 덮는 구조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 고분 중에서 목관이나 목곽이 원형 그대로 발견된 사례는 없으나 家形 석곽 또는 家形 석실이 태왕릉과 절천정묘에서 나타난다. 태왕릉 석실 내부에는 맞배 지붕의 家形 석곽(또는 가형 석실)이 안치되어있다. 산성하 절천정묘는 천장이 집 지붕 형태를 띠고 있어 묘실 자체가 태왕릉과 같이 석조 가옥을 재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 북조 고분에서도 석조로 된 가형 葬具가 현재까지 5 점이 발견되었다[표 4]. 북위 太和 元年(477 년)부터 隋 開皇 12 年(592 년)의 115 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大同 雁北 師院 北魏墓群 중에서 M5 의 송소조묘(477 년), 大同 智家堡 北魏墓(太和 8 年~太和 13 年, 484 年-489 年), 하남 낙양의 寧懋墓(孝昌 3 年, 527), 西安市 井上村 동쪽의 北周 史君墓(大象 2 年 580), 太原 王郭村 虞弘墓(隋 開皇 12 年, 592)이다. 석조가 아닌 목조로 가형 목곽이 출토된 예로는 산서 壽陽의 북제 庫狄廻洛墓(562)가 있다.¹⁶

[표 4] 중국의 석조 가옥형 장구

벽화고분	연도	치수	내부 시설, 장식
대동 사원묘군M5 송소조묘	북위 태화원년(477)	높이 2.4m, 너비 3.48m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회랑 가옥 안에 석상(석탑) 설치
대동 智家堡北魏墓	북위 태화8년~태화13년(484-489)	길이 2.11m, 깊이 1.13m	후벽: 선비족 복식의 묘주 부부 석곽 하단에 목제 석상 설치 추정
하남 낙양 寧懋墓	북위 孝昌3년(527)	길이 2m, 높이가 1.38m, 깊이가 0.97m	후벽: 장식 없음 석곽 하단에 목제 석상 설치 추정
西安 北周 史君墓	北周 大象2년(580)	높이 1.52m, 너비 1.35m	
太原 王郭村 虞弘墓	隋 開皇12년(592)	석곽 관산: 길이 2.34m, 너비 1.35m, 높이 0.96m	
北齊 庫狄廻洛墓	北齊 河清1년 562년	길이 3.82m, 깊이 3.04m 50 점 이상 목조 부재	

고분미술에서의 병풍의 활용은 동시기 중국 고분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에서 병풍은 중요한 생활가구로서 동한~위진남북조 벽화고분의 묘주도의 배경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위진남북조~수당 미술에서는 병풍화의 실내장식 기능이 더욱 커지고 병풍의 화면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⁷ 이는

¹⁵ 『魏書』 列傳 九十二卷 卷十三 皇后列傳第一 文成文明皇后馮氏. 『北史』 列傳 八十八卷 卷十三 列傳第一 后妃上 魏 文成文明皇后馮氏.

¹⁶ 大同市文物研究所, 『大同雁北師院北魏墓群』, 文物出版社, 2008, p.176-182.

山西省考古研究所 . 大同市考古研究所, 「大同市北魏宋紹祖墓發掘簡報」, 『文物』, 2001 年 7 期.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隋代虞弘墓』, 文物出版社, 2005.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墓石槨墓」, 『考古』 2004 年 7 期. 王克林, 「北齊庫狄廻洛墓」, 『考古學報』, 1979 年, 3 期.

¹⁷ 양홍, 「중국 한당시기 도시건축과 생활미술품의 변천」, 『미술사논단』, 28 호, 2009, pp.231-232.

고구려의 병풍과 휘장 장식문인 왕자 유운문과 연화문이 확대 적용되면서 묘실 실내 전체를 장식하게 되는 변천과정과 비교된다.

북위 文明太后는 平城 교외의 方山에 永固陵을 조영하면서, 분구 앞에 축조되었던 祠堂의 내외에 靑石병풍을 두르고, 충신, 효자, 열녀 등 제재의 설화도를 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⁸ 문명태후의 사당인 영고석실에 석병풍을 둘렀다는 구절이 주목된다. 동시기에 축조된 산서 대동의 북위 고분들에서 묘실 안에 磚築과 石雕의 棺床(또는 石床, 石榻)과 병풍을 조합하여 배치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북위 후기에는 고급귀족의 묘실 내에 죽림칠현과 여사잠도, 효자도와 같은 주제의 그림이나 귀족 풍속화를 새긴 병풍석을 석제 장식 관대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¹⁹ 문명태후의 사당에 배치된 석병풍이 귀족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당 내부 구조물의 형식과 기능이 고급 귀족의 고분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산서 대동 司馬金龍墓(474-484 년)에서는 석제가 아닌 칠병풍이 발견되었다.²⁰ 사마금룡묘의 후실에서 力士, 獸面, 팔메트의 부조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북조 장식 석관대가 나왔으나 그것과 조합된 석병풍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후실 남부와 전·후실을 있는 甬道에서 흩어져있는 목제 병풍 판 5 매와 약간의 잔편, 병풍 礎石 3 점, 관대 초석 1 점이 발견되었다. 사마금룡묘 병풍은 관대 병풍, 즉 葬具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²¹

북조 후기에는 소그드인들이 석제 관대와 병풍을 결합하여 위병석탑의 형식으로 묘실을 꾸민 사례(섬서 서안 출토 북주 安伽墓 圍屏石榻[大象元年 579], 섬서 서안 북주 康業墓 圍屏石榻[天和六年, 571], 일본 미호미술관 소장 북제 石屏風)가 있다.²²

중국의 위진 남북조 고분에서는 병풍화가 여러 첩의 형태로 확대되어 묘실 벽면을 넓게 감싸거나, 칠병풍 또는 석병풍의 형태로 묘실 내에 설치되었다. 병풍의 장식 주제는 여전히 인물이 중심이다. 중국의 당대와 그 이후에는 병풍화가 산수, 화훼 등 다양한 회화 제재를 망라하게 된다. 중국의 당나라 벽화고분은 북부 지방 고분의 구조를 계승하였지만, 묘주의 인물 표현을 없애고 대신 여러 폭의 병풍 이미지를 사용하여 관대를 둘러싸면서 묘실 벽을 장식하였다.²³ 고구려 벽화에서는 병풍의 장식문양이 묘실 전체로 확대되지만 인물은 사라지고 장식문양만 남는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IV. 고구려 벽화고분의 장식과 건축에 나타난 제사공간과 영좌의 표현

고구려나 중국 고분 벽화에서 병풍화가 묘실 전체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활용 및 기능하는 것은 병풍화가 가진 제의적 기능과 상징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병풍은 神殿의 벽면을 대신하며, 벽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례적 공간을 대상하는 기능을 지닌다. 또한 관혼상제, 모든 통과의례에 병풍이

¹⁸ 『水經注』 “堂之內外.四側結兩石趺,張靑石屏風,以文石為緣,并隱起忠孝之容,題刻貞順之名.”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大同方山北魏永固陵」,『文物』,1978년,7기.岡村秀典・向井佑介編,「北魏方山永固陵の研究-東亜考古學會1939年牧集品を中心として」,『東方學報』,80,2007,pp.150-69.

¹⁹ 참고, 「5-6세기 고구려와 중국 고분의 건축과 장식의 기능과 관계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제18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2. 8.

²⁰ 大同市博物館.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山西大同石家寨北魏司馬金龍墓」,『文物』,1972년 3기.

²¹ 蘇哲,『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白帝社,2006,pp.83-89.

²² 陝西省考古研究所,『西安北周安伽墓』,文物出版社,2003.

²³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s*, University of Hawaii, 2010, pp.76-84.

사용된다. 병풍 앞에서 제사할 때에도 실제로는 그 병풍 뒤에서 어떤 절대자나 성스러운 행위가 실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병풍은 일차적으로 제사를 받는 대상을 세속으로부터 은폐하거나 격리시키는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차적인 신전의 祭場이 되어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매개자가 된다. 따라서 병풍에 어떤 내용의 그림이 그려졌는가가 중요하며 그림의 내용에 따라 그 제사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우홍의 이론을 적용하여 고분미술에서의 병풍을 해석하자면 병풍은 건축적 공간을 구획하는 3 차원 물체로서의 병풍,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2 차원의 표면으로서 병풍, 회화공간을 만들도록 돕고 시각적 은유를 제공하는 그려진 이미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건축구조적 형태로서의 병풍은 3 차원 공간을 차지하고 나눈다. 병풍은 하나의 구조물이며 그 기본적인 기능은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다.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림 형식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역할과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며 공간개념과 완전히 결합한다.²⁴

『禮記』의 「明堂位」에 의하면 공적인 행사 때 황제가 병풍 앞에서 남쪽을 향하여 앉도록 규정되어있다. 등 뒤에 도끼 문양이 수 놓인 병풍을 배경으로 황제는 상징적 우주의 중심으로서 신하를 접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병풍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감상용뿐만 아니라 의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조선 왕실의 혼전에는 모란과 일월 오봉 두 가지 병풍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병풍의 성격을 고분미술의 묘주도에 대하여 적용하면 묘주는 병풍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으며 그곳이 자신의 소유임을 알린다. 병풍은 건축구조적인 형태로서 역할 하면서 ‘공간’을 ‘장소’로 전환하여 한정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설치물로서 병풍은 소유자의 장소를 명확히 하고, 이 장소를 지배하는 그의 권위를 드높인다. 묘주에게 병풍은 외부의 물체이자 묘주의 육신의 확장이다. 병풍은 묘주가 지배하는 의례적·상징적 장소의 경계를 둘러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주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다.²⁵

병풍의 틀과 장식은 예기예술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예기예술은 건축적 틀 짜기의 결과로 생기는 강력한 위계질서와 장식적 문양 놓기의 결과로 생기는 강력한 연속성이 특징이다. 반복적으로 퍼져 나가는 문양의 통일은 틀에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표면과 이미지의 분리와 상호 작용이 병풍의 개념을 진전시킨다. 고구려 묘주도에서 병풍 장식문양과 묘주도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병풍의 장식문양이 가진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다. 실제로 병풍은 전체 공간에서는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만, 병풍 이미지는 회화적 표현에서 전체 공간을 표상한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왕’자 유운문이 병풍 안의 문양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실 또는 후실 전체 공간을 감싸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에 비교된다. 병풍 이미지의 주요 기능이 표현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으며, 또는 병풍 이미지의 선택과 묘사는 부분-전체와 전체-부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또한 고분 안의 표현된 ‘왕’자 유운문 또는 순수장식문양은 그 자체가 소위 ‘예기’라고도 볼 수 있다. 예기는 광의의 의미로 쓰일 때는 그릇, 기구, 휘장 등 모든 종류의 물건을 의미하게 된다. 장식이란 형태로 정해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표면의 양식이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형태를 다시 규정짓는다. 공간을 도안으로 ‘채우는’ 것과,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도안으로 덮어 그 물건이나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 도안은 그것이 담겨 있는 물건이나 공간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²⁶

²⁴ 우홍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pp.9-30.

²⁵ 우홍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pp.9-30.

²⁶ 우홍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75.

휘장이란 집단, 계층 혹은 문화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어 그 휘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반복할 수도 있다.²⁷

고구려벽화에 사용된 왕자문과 연화문은 고구려인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휘장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묘실 공간 전체를 덮으면서 인물풍속도를 대체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장식문양도는 병풍의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면서 독립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묘주의 배경으로 사용되다가 독립성을 얻으며 묘실 전체 장식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묘실 안에 꼭 찬 묘주 영혼의 존재, 즉 靈座를 상징하면서 묘실 자체가 장식문양이라는 상징적 표현에 의해 혼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도리 벽화고분의 후실 북벽 묘주도에 그려진 ‘왕’자 유운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왕자유운문의 장식이 고분 안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옥도리 벽화고분에 설치된 감과 단이 장의건축의 일부로서 묘실 내의 묘주에 대한 靈座 또는 魂殿의 표현과 조상숭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되는 휘장 걸이 용 못구멍과 가형 석실의 존재는 회화로 표현된 묘주도의 건축적 표현 요소들이 실제 고분 안에 구조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고구려 벽화고분의 묘주도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하나는 묘주가 앉은 전각과 같은 공간을 덮고 있는 휘장이 강조되어있다는 점이다. 고구려 묘주도에 보이는 휘장의 사용은 종묘의 神室이나 문묘의 대성전의 휘장의 설치와 휘장걸이 설치를 연상시킨다. 고구려 묘주도에서 휘장이 강조되고 휘장의 장식문양이 묘실 벽면 전체로 확대되어 표현된 이유는 휘장이 묘주의 영좌의 상징이자 중요한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구려 고분 내에서 묘주의 영좌 표현은 묘주초상화, 제단(제대), 감실, 휘장 등 전체 고분 장식과 건축과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우홍은 병풍 이미지, 예기로서 휘장과 장식문양의 의미와 상징, 영좌의 개념과 표현양상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²⁸ 중국 고분에서의 영좌 표현의 연원은 동한대 낙양의 고조에 대한 종묘의 영좌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라의 시조에 대한 중요한 제사 시에 수놓은 장막을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영좌를 마련하는 의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의 건축물은 이미 사라졌으나, 유사한 영좌가 한나라 고분들에서 관찰된다.

빈 영좌 또는 神位는 고분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묘주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마왕퇴 1 호묘의 북실의 묘주의 영좌 표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북실의 벽에는 비단 휘장이 걸려있고 대나무 자리가 바닥에 깔려있다. 두꺼운 방석이 그 위에 놓이고 뒤에 그림 병풍이 둘러져 있으며 앞에는 정교한 칠기들이 놓여있다. 두 쌍의 비단 신발과 지팡이, 화장품 상자 등 묘주의 개인 용품들로 구성된 부장품들이 영좌를 둘러싸고 있다. 묘주는 가장 안쪽의 관을 덮고 있는 백화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북실의 침상 옆에서 발견된 지팡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자묘주의 영좌는 그 외에 8 명의 가수와 무용수, 5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도용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들의 무대는 북실의 동쪽 끝에 만들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여자묘주의 영혼이 서쪽 끝에 있는 침상에 앉아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공연을 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마왕퇴 고분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죽은 묘주의

²⁷ 우홍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p.120.

²⁸ 병풍 이미지, 장식문양의 의미와 상징, 영좌의 개념과 표현양상에 대하여는 우홍 저, 서성 역, 『그림속의 그림』, 이산, 1999. 우홍 저,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 아카넷, 2001.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 University of Hawaii, 2010 을 참고.

이중적 존재 형태이다. 관은 그녀의 육체를 담고 있고, 빈 영좌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가리킨다. 호남 장사 마왕퇴 1 호묘의 북실에서 발견된 병풍은 묘주의 영좌를 구성하는 상징적 부장품 중 하나이다.²⁹

마왕퇴 1 호묘는 관위에 놓였던 'T'자형 백화, 세 개의 관에 그려진 칠관화, 도용 등 다양한 부장품이 상호작용하며 묘주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왕퇴 1 호묘의 세 번째 칠관의 좌측 관관화는 구도와 색채면에서 하남 영성 시원한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병풍화도 붉은 색을 주조로 하여 용과 장식문양을 그린 점이 시원벽화묘의 천장벽화와 유사하다. 따라서 시원한묘 벽화의 연원은 마왕퇴 1 호묘의 칠관화와 백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분의 백화와 칠관화가 발달하여 묘실 벽화로 전개된 것이다.

마왕퇴 1 호와 3 호묘의 병풍화, 칠관화, 백화(관을 덮거나 묘실 벽에 걸린)의 관계는 고구려의 장식문양과 고분 내의 못과 못 자국과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관은 일종의 "器具"(葬具)로서 고분 장식의 발달에서 시원묘의 벽화는 葬具의 장식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황혈식 고분의 정방형 묘실 공간은 칠관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칠관 위의 채색회화가 묘실의 벽면으로 옮겨졌을 수 있다.³⁰

기원전 2-1 세기에 전축 또는 석축의 황혈식 묘실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묘주의 영좌는 제의공간을 상징하는 고분의 전실에 차려지며 고분 내에서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북성 만성 1 호 고분(유승묘)가 한 예이다. 中室(전당)에 차려진 장방 아래에 두 개의 영좌가 설치되어있다. 중실에서 출토된 청동 帷帳架를 조립한 결과 길이 2.5m, 너비 1.5m, 높이 2m 의 두 채의 목조 구조물이 재구성되었다. 이들 목조 구조물은 錦帳으로 덮여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앞에는 제기들이 배치되어 제사 장면을 재현한다.

고분 안에 묘주의 영좌와 제사 공간을 설치하는 관습은 한대와 한대 이후에 귀족만이 아니라 낮은 직급의 관리와 심지어는 평민들에게도 공유되었다. 이 시기 많은 소형, 중형 고분의 전실에 제대 또는 제단이 조성되었다.

후한의 하남 밀현 타호정묘와 후사곽묘에도 묘실에 제대가 설치되었으며 제대 주위에 목조 구조물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타호정 1 호묘의 中室 西段에는 바닥에 제대를 설치하였다. 평대의 위에 작은 祭壇形 건축물을 설치하고 평대 주위 벽과 천장에 원래 帷帳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타호정 2 호묘의 中室 西段에도 제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제대의 서, 남, 북 삼면 가장자리에 너비 약 0.06m, 깊이 약 0.05m 의 石槽가 있고 석조 안에는 썩은 나무흔적이 발견된다. 중실 서단의 천장과 벽면에 목판을 끼워 넣고 목판 위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남 밀현 後土郭에서 발견된 세 기의 고분에서도 묘실 내의 중실 서부에 각각 평대가 설치되고 평대의 동쪽 가장자리의 초석 위에 石槽가 있고 그 안에 건축 부재가 설치된 흔적이 있다고 한다.³¹

曹魏時期에는 분묘상부에 祀廟 등의 묘상건축물의 축조를 금지한 후로 묘실 내부 공간에서의 奠祭가 중시되기 시작한다. 묘실의 전실 혹은 주실의 앞쪽 부분에서 帷帳施設, 漆案, 漆盃, 盤, 牀榻, 酒器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전제와 연관성이 있는 기물들로 여겨진다. 서진시기 묘실구조는 다실구조의 前堂이 단실 혹은 쌍실로 감축되며, 묘실내부에 牀榻을 설치해 脯酒를 차려놓고 奠祭를 지낸 것으로 확인된다. 동진시기에도 남경지역과 동북 요녕지역의 묘장에서 전제와

²⁹ Wu Hung, *Art of the Yellow Springs*, University of Hawaii, 2010, pp.64-68.

³⁰ 鄭岩, 「關於墓葬壁畫起源問題的思考-以河南永城柿園漢墓爲中心」 『古宮博物院』 2005 年 3 期, pp.56-160.

³¹ 河南省文物研究所, 『密縣打虎亭漢墓』, 文物出版社, 1993.

연관이 있는 食器와 帷帳施設 등이 출토된다.³²

위진남북조 벽화고분에서 나온 유장으로 잘 알려진 예는 하남 낙양의 曹魏 正始八年墓(247년)와 요녕 조양 원대자 위진벽화묘가 있다. 감숙 돈황 불야묘만 37호묘(위진)는 묘실의 후벽에 供臺가 설치되고 그 앞에 황색으로 帷帳을 그렸다. 供臺 위로, 그리고 남측과 북측 목관 위로 황색 견직 帷帳이 얹혀진 木棍이 걸쳐져 있다. 유장이 벽화와 구조물로 동시에 표현된 경우이다. 불야묘만 133호묘는 전실에 달린 벽감 안에 황색 帷帳을 그렸다. 황색으로 칠해진 장막 안에는 아무런 인물도 그려져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묘주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우후에 의하면 사후의 영혼을 표현하는 영좌의 두 가지 표현 방법은 개인적 선호, 지역적 전통, 시기적 특징을 반영한다. 또한 고분건축과 장식의 제의적 기능과 영좌 표현에 대하여는 기남화상석묘와 같은 고분 안에 그려진 건축도가 일반 생활에 사용된 건축이 아닌 제사에 관련된 건축을 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옥도리 벽화고분의 발굴보고서에서도 후실 동벽의 인물도가 단순한 행렬이 아닌 묘주가 사망한 후 그에 조의를 표하는 주인공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자주 관찰되는 행렬도와 묘주도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풍속도로 분류되는 벽화 주제들이 생활풍속을 그린 장면이 아니라 고분이라는 장의 건축과 장식에 맞춰 그린 상징적 장면이라면 시각을 달리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벽화의 건축도에 대해서도 일반 생활 속의 건축물이 아닌 묘주의 영좌, 혼전, 사당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안악 1호분의 묘실 북벽은 묘주의 초상이 없으며 대신 전각도가 전체 벽면에 그려져 있다. 전각도를 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공간인 묘실 후벽에 그린 점이나 전각의 모든 문이 열려 있는 점은 중국 한대 이래 건물도의 제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天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소재 옥도리벽화고분에서 보이는 전실의 감과 단의 설치, 묘주도의 '왕'자 유운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옥도리 벽화고분을 포함한 북한 지역 고구려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기둥이나 감, 제대를 가진 특수형 구조의 벽화고분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왕자문 또는 '왕'자 유운문이 출현하는 고구려 벽화고분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활용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고구려 벽화고분 안에서의 휘장의 설치 형태나 고분 안의 구조물의 형태를 추정해 보았다.

옥도리 벽화고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왕'자 유운문의 장식이 고분 안에서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풍부한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옥도리 벽화고분에 설치된 감과 단이 장의건축의 일부로서 묘실 내의 묘주에 대한 영좌의 표현과 조상숭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분 내에서 묘주의 영좌 표현은 묘주초상화, 제단(제대), 감실, 그리고 전체 고분 장식 프로그램과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고분미술에서의 건축과 장식이 결합되어 나타내는 것은 묘주의 영좌 또는 묘주를 제사지내는 공간의 표현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에서는 초상의 형식으로 표현된 묘주와 감과 단(제대) 및 장식문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묘주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가지 형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왕'자 유운문이다.

³² 조윤재, 「中國 魏晉南北朝의 墓葬과 喪葬儀禮」,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2011, pp.239-302.

‘왕’자 유운문은 관대의 장식, 묘실의 전체 표면 장식, 묘주도의 배경 장식, 관대가 놓인 벽면의 배경 장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고구려 벽화에서 ‘왕’자 유운문의 존재는 그 앞에 실제 인물화의 표현 여부에 상관없이 묘주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위진남북조 고분의 병풍, 유장, 석상, 석곽 등 고분 내 구조물에 대한 비교 연구는 2 차원적인 벽화로 표현되든 3 차원적인 조각이나 건축으로 표현되든 고구려와 중국 고분 안의 관, 곽, 유장(회장), 석탑은 모두 묘주를 위한 葬具로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작되고 묘실 안에 일정한 상장 의식과 장의 풍속에 따라 설치된 것임을 보여준다.

천왕지신총과 대안리 1 호분은 묘실 안에 ‘人’자형 두공을 부조로 표현하여 고분 공간을 목조 건축 형식으로 충실히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장방형 전실을 통하여 송소조묘의 석곽과 같은 前廊(또는 전당)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실의 넓은 관대의 설치와 천장의 목조 구조의 표현, 벽면의 귀갑연화문 연속 도안 안에 삽입되듯 그려진 묘주도는 묘실 전체가 장식 휘장이 둘러쳐진 목조가옥 안에서 묘주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葬儀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북위 송소조묘의 가형 석곽을 연상케 하며 중국 고분에서 발견된 가형 석곽과 석탑이 가진 제의적 상징성, 고분 내에 석조로 재현된 목조 사당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중국의 고분 벽화나 화상석, 고분의 다양한 조각 공예 부장품들은 독립적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다 큰 조합 중의 한 가지 요소이며, 이들 조합은 다시 종묘, 궁전 혹은 고분과 같은 특수한 건축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였으며 이러한 건축물이 그 사회의 기념비 복합체를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벽화고분 역시 고구려 사회와 문화의 기념비적 복합체로서 고분 안의 장식과 건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7 세기 고구려의 장의 미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